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레저비엔상담소와 함께 풀어보는 59 가지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함께 풀어보는 59 가지 궁금증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례

제작배경	3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5
동성애 관련한 질문들	14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49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	68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	93
단체소개	108

FAQ

제작배경

상담소에는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상담전화는 물론이고 방송국 작가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요즘처럼 과제를 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대학생들까지, 저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동성애자 인권 현안에 대한 상담소의 공식 입장을 묻기도 하지요. 이렇게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던지는 질문들이 늘 비슷하기만 하다는 사실은 한편 좀 기운 빠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같은 답변을 반복해야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켜나가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 인권 운동의 중요한 역할임을 잘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질문만을 던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어디서도 동성애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위 정규교육이라 불리는 12년 간의 초·중·고 교과 과정만을 떠올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애를 기반으로 한 소위 정상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교육받았을지 몰라도, 동성애자 정체성도 자연스럽고 다양한 성적체성 중의 하나이며 동성애자도 역시 가족을 구성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은 배워본 적이 없지요.

상담소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상담소, 대학, 신문사 등에서 수많은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십대 여성 쉼터 실무자,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기도 하고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사업 또한 정기적으로 열었으며 상담소 공식 홈페이지(www.lsangdam.org)의 여러 게시판을 활용하여 관련 글이나 자료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그 과정에서, 강의가 열리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계시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 외국 서적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맞으면서도 누구든 이해하기 쉬운 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것이 바로 「자주 묻는 질문 FAQ」입니다. 이 질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시작한 당사자들이 상담 속에서 빈번하게 풀려 놓았던 고민이기도 하고, <동성애 바로 알기> 강의의 수강생들이 질의 응답 시간에 직접 던졌던 질문들이기도 하며, 바로 당신이 이제껏 궁금해 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 ① 알아두면 좋을 용어들
- ② 동성애 관련한 질문들
- ③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 ④ 동성애에 대한 편견들
- ⑤ 트랜스젠더 관련 상담

각각의 항목은 7~17개의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레즈비언 상담소인만큼 FAQ의 내용으로써 레즈비언과 관련된 사례들을 주로 다루었으나, 트랜스젠더 상담 또한 상담소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가 상담을 통해 자주 접하는 트랜스젠더 관련 질문도 수록하였습니다. 총 59개 문항으로 집대성된 이 자료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에, 그리고 동성애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을 종식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7년 1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FAQ

1.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 동성애 / 동성애자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뜻하지요.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만이 파악하고 정체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당사자의 성정체성에 대해 진단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성정체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강요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 레즈비언 lesbian

레즈비언은, 같은 여성에게 감정적, 정서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여성을 말합니다. 여성동성애자를 의미하지요.

이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그리스 에게해 레스보스Lesbos 섬에서 유래했습

니다. 최고의 그리스 여성 시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고대 시인 사포 Sappho는 동성애자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녀의 활동 근거지가 바로 이 레스보스 섬이었다고 해요. 레즈비언이라는 말은 이렇듯, 레스보스 섬의 사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여성동성애자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 레즈비언이나 아니냐는 본인만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이끌림을 느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 여성들만이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 게이 gay

게이는 여남 동성애자를 모두 아울러서 뜻하는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로 남성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건 서양의 이야기이고, 한국에선 게이하면 남성동성애자, 레즈비언하면 여성동성애자를 나타내는 말로 확실하게 구분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게이라는 말은 본디 영어 단어으로써, '즐거운, 유쾌한, 기쁜, 행복한' 등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서양에서 여성인권운동, 흑인민권운동과 더불어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게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지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한 낱말로 쓰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 양성애/양성애자

양성애란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동성의 상대 혹은 이성의 상대에게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양성애자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 중에, 자신을 양성애자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하고요.

양성애자 정체성도 동성애자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스스로 깨닫고 규정을 짓는 것이지, 타인이 진단하고 규정하려 들어선 안됩니다.

▲ 이반 二般, 異般

이반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자연적으로, 당연하게'를 의미할 때 "일반적으로"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일반(一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포함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에 동성애를 포함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범주에서 동성애자들을 배척시키곤 하지요.

그래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반(二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를 이(異)자를 사용해, '이반(異般)'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선 동성애자나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말보다 이반이라는 말이 더 흔히 쓰입니다. 이와 대칭적으로 이성애자를 '일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이성애/이성애자/이성애주의

이성애란 이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사회적,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애자란 이성의 상대에게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함에 있어,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등은 바로 그 자신만이 파악하고 정체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신 판단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 안에 동성의 상대에게 끌릴 수 있는 확률과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해요. 어느 확률이 더 높은가, 그 중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선택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일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탐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성인 상대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며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옳고 자연스럽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성애만이 존재하며 그것이 정상이고, 동성애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비정상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제도와 문화적 편견 등이 바로 이성애주의입니다.

이성애주의는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옳은 것이라고 간주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탐색하고 알아갈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양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하지요. 성적체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이성애주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동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나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❷ 호모포비아 homophobia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에 대한 공포증을 뜻합니다. 혐오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 중 하나가 근거 없이 막연하게 동성애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동성애자에게 욕을 하거나 비방하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보여 주는 증상이 바로 호모포비아적 증

상입니다.

최근 호주 의학계에는 이 호모포비아를 정신질환 목록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 자체가 이상한 정서라는 것이지요. 1970년대 중반까지 동성애 자체가 미국 의학계에서 정신질환 목록에 올라있었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호주의 이런 움직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세계 의학계가 동성애가 정신병이나 이상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성애를 정신병이라고 보고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가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호모포비아를 양산해 내는 사회입니다. 이성간의 이 끌림, 사랑, 교제, 성관계, 결혼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깐요. 그 와중에 동성애자는 마치 돌연변이 내지는 괴물인 것처럼 취급되고요. 그러다보니 동성애자들 본인조차 자기 안의 호모포비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회 환경으로부터 동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은 호모포비아를 가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기억합시다.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든 이성의 상대에게 끌리든 그것은 잘못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이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만 제발되는 환경이다 보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성의 상대에게 이끌릴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 부자연스럽거나 비정상인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건, 호모포비아입니다.

그럼 FAQ를 시작으로 해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탐색해 나갑시다. 국내에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 따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끌림일 뿐이며 동성애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호모포비아를 부수어 나가는 여정은 길고 험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을 의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커밍아웃 coming out

'커밍아웃'이란 '벽장으로부터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라는 뜻을 가진 영어 구절의 줄임말입니다. 나의 존재를 가두고 있던 벽장으로부터 나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긍정하는 것,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족 등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것, 대사회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리는 행위 모두를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간주되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이성애자도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굳이 밝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살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는 동성애자들에게겐 엄청난 억압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고 드러내지 못한 채 이성애자의 가면을 쓰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정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긍정하는 일, 나아가 타인에게 나의 정체성을 알리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 등은 동성애자들의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존재가 더 많이 알려지고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또한 커밍아웃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꾀의식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데서 오는 자신감과, 타인에게 나를 온전히 드러냈다는 데서 오는 해방감과 별개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불이익과 차별과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밍아웃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커밍아웃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아우팅 outing

동성애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과는 달리, '아우팅'이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적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성애자도 누군가가 자신의 이성애자 정체성을 폭로할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으로 규정되는 사회니까요. 이성애주의 사회는 동성애자 정체성을 '약점' 혹은 '숨겨야 하는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거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등의 폭력을 겪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제 3자에 의해 밝혀졌을 경우, 그 개인은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아우팅은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낼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해요.

더 큰 문제는, 당사자가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우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아우팅'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혐오 범죄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이성애자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부끄러

울 것도,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는 일이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인생에 족쇄를 채우는 사회와,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차별받고 잔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혐오와 억압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현 사회에서 '아우팅'은 동성애자의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가지 범죄와 차별 사건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 간에 타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들도 많지만 그것이 본인이 원하는 일인지, 외부에 알려져 당사자가 피해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성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반해서 가해지는 일방적인 성적 폭력입니다. 즉,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성폭력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감 등을 줄 수 있는 언어적, 정신적 폭력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성추행이나 강간뿐만 아니라, 불쾌한 성적 언동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추근거림 역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계속적으로 접근하고 따라다니며 상대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스토킹도 성폭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분히 이성애중심, 남성성기 중심의 통념에 따라 성폭력 여부와 경중을 따지는 분위기가 만연해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결코 이성간에만 한정된 범죄가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당연히 동성애자일 것이라고 여기거나 동성 간 성폭력은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성애자가 동성인 상대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변명에 동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 간 성폭력의 경우는 그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해도, 동성 간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폭력에 대해 반대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반성폭력네트워크(여성이반 커뮤니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임 <http://kirikiri.org/network>)

FAQ

II. 동성애 관련 질문들

Q : 동성애라는 게 뭐죠?

A : 동성애란 동성의 상대방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성적인 이끌림 등을 말합니다. 이끌림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일종의 욕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싶고, 보다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 손을 잡아보고 싶거나 입맞춤을 해 보고 싶은 등 스킨십의 욕구도 이에 포함되지요.

이러한 이끌림이나 욕구는 사람에 따라 그 성격이나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매료되었을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자꾸만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상대방과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지요.

동성의 상대방에게 느끼는 이러한 이끌림은,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느끼는 호감, 어떤 남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느끼는 호감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성 간에 느끼는 호감과 이성 간의 교제만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요.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성애란 질병도 잘못도 아닌,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애써 원인을 규명할 필요도, 제거하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이끌림입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동성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성의 상대방에게 이끌어 본 경험을 하신 분들, 그리고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깨닫고 인정하게 된 분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사회에 대해 분노하세요.

또한 동성애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회의 편견에 길들여져 온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 대해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과 다른 존재에 대해 차별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요.

Q: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나요?

A: 누구도 '어떤 사람이 이성애자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동성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동성애자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매우 곤혹스러워진답니다. 그런 질문에 깔려 있는 생각이 의심스러우니까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깔려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성애만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연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동성애의 원인을 규명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성호르몬이 많은 여성이 레즈비언이 된다'든지, '원손잡이 중에 동성애자가 많다'든지 하는 설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어떠한 연구 결과도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애초에 원인을 찾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자들 가운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성 친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이 계기가 되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느냐, 이성애자가 되느냐에 있어서 특정한 이유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것이지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저마다 경험과 생각이 다르고, 동성애자라고 인식하게 된 계기나 시점들도 다

른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왜 그럴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동성애자가 된 걸까?' 라고 의아해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왜 동성애자들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Q: 동성끼리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느 누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명료하게 보편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데 말이지요.

"사랑이란 ()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괄호 안에 어떤 말을 채우겠어요? 여러 가지 익숙한 말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테고,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보려고 애쓰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사랑의 형태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성애자들이 자신의 파트너와 나누고 있는 사랑의 형태가 천차만별이라면, 동성 커플들의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혹시라도 동성간의 사랑은 이성간의 사랑에 비해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성관계 중심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부터 점검해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물론 성생활 중심의 사랑도 가능하고 그것 자체를 열등한 사랑의 형태로 평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니까요. 이는 이성애자들 동성애자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다만 동성애를 “난잡한 섹스”, “문란한 관계”라는 식을 폄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이 있기에 그 점을 우려하는 것일 뿐입니다.

동성애와 이성애가 다르다면, 그건 사랑하는 상대가 이성인 아닌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지요. 또한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문화가 다르니, 이성애 커플의 문화와 레즈비언 커플의 문화, 그리고 게이 커플의 문화가 각각 다른 면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화시켜서 무엇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순 없어요. 레즈비언 커플들도 다른 모든 커플들처럼 자신들만의 사랑을 가꾸어나가고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 자체는 어느 사랑과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사랑이지만, 동성간의 사랑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성간의 사랑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령, 이성 간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관련이 깊지요. 그러나 동성 간 사랑은 법적 테두리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사랑의 방식이나 유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같은 점들은 다른 점이라고만 이야기할 순 없죠.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니까요. 사랑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Q : 현재 여자를 좋아하거나 과거에 좋아한 적이 있다면 레즈비언일까요?

A : 사람들은 아직 누군가를 그리 특별히 좋아해 본 적 없다 할 지라도, 자신이 앞으로 이성의 상대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곤 하지요. 또한 이성의 상대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나는 현재 이성의 상대를 좋아하고 있고, 과거에도 좋아한 적이 있으니까 이성애자인 것일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애만이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강하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레즈비언들도 역시 자신이 여성에게 갖게 되는 이끌림에 대해 ‘나는 레즈비언이구나’ 하고 규정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적 통념이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인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까봐 움츠러들게 되고요. 내 주위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 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해 생각해봐도 불안하지요.

그렇기에 여성에게 이끌린다고 해서 어떤 여성이 자신을 레즈비언이라고 깨닫거나 규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요. 여성에게 끌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음에도, 혹은 여성과 교제했던 경험이 있는데도,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성과의 교제 경험이나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던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동성애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현재 여성을 좋아하고 있거나 과거에 여성을 좋아한 경험이 있는 여성 중, 그러한 경험을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신의 통합적인 정체성 안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만이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성이 레즈비언인가 하는 문제는 '너는 레즈비언이야. 여자를 좋아한 적이 있잖아'라고 다른 사람이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자기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잘 찾을 수 있듯, '나는 레즈비언인가'에 대한 대답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 동성애는 선천적인 건가요, 후천적인 건가요?

A :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를 궁금해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자신을 동성애자로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일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왜 동성애자가 되는 거지?"라고 묻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나? 동성애자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까, 그 차별을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겠어요.

사실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를 밝혀내려는 연구는 계속 있어왔죠. 그러한 연구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이 깔려있었어요. 동성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회에서 이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애의 원인을 묻지 않고 알아내고자 하는 연구도 하지 않잖아요.

동성애에 대해 편견을 가진 연구자들이 시도한 연구의 결과가 어떨까요? 엉터리 연구결과를 내놓고선 이를 통해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그 원인이 뇌 속의 구조에 있다고 보기도 하고, 뇌의 이상에 있다고 보기도 했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뇌 전두엽 절제수술을 하기도 하고, 전기충격 요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끔찍한 일이지요.

반면 동성애자 정체성을 후천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레즈비언이 된다는 설도 있었고, 여자들끼리 모여 있는 환경에 있으면 레즈비언이 된다는 설도 있었죠. 남성의 경우엔 같은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하긴 혹은 누나가 많아서 게이가 된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가만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여성들은 이성으로부터 폭력을 겪거나 동성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레즈비언이 된다고 하면서, 남성들은 동성으로부터 폭력을 겪거나 이성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게이가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성으로부터 성폭력을 겪거나 가정폭력을 겪은 여성들이 레즈비언이 되는 거라면 우리 사회에선 레즈비언이 과반수를 차지하겠군요. 이처럼 선천적 원인설이나 후천적 원인설이나 말이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동일하네요.

자, 그럼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된 이유에 대해,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각기 다르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동성애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후천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각자 판단한 원인은 적어도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실에 가깝겠지요.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혐오하면서 동성애의 원인을 궁금해 하는 것과는 달리,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유에 대해 탐색해보는 과정은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을 이성애자와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차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정체성을 선택할 때, 자신이 언제부터, 왜, 동성애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특정한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원인을 탐색해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이성애중심적인 환경 속에서 무시하고 살 수밖에 없었고 선택적으로 지워버렸던 기억을 정리할 수도 있지요. '아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을 단순히 우정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사랑이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기억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지금껏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감정들과 경험들을 소중하고 존중할만한 것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각기 다른 원인을 떠올릴 수 있고, 그만큼 동성애자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하는 문제는 정해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지요.

자, 이제 동성애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나요? 중요한 것은 동성애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혹은 타인의 삶) 그 자체를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동성애에 대한 어떤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 질문을 역으로 이성애자에게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이성애가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하는 질문이 황당하게 느껴진다면, 동성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느껴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Q : 동성애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A : 동성애자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명처럼 타고나거나 선천적으로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인지 묻고 계시는군요.

동성애자란 동성의 상대에게 감정적, 심리적, 성적으로 이끌리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감정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인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동성인 상대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동성애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동성을 좋아하는지, 이성을 좋아하는지, 그 자체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가 동성이냐 이성이나를 떠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성을 향한 이끌림을 인정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의지'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편견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이성애자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못 느끼고, 자신이 이성애자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필요도 느껴지 못하지요. 이와 달리, 동성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게 되기 쉬워요. 때문에 자신이 동성에게 이끌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 고민을 거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와, 낙인과 차별에 맞서 살아갈 수 있는 굳은 의지가 필요한 것이랍니다. 안타깝게도, 동성애자임에도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처럼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선택과 의지는 분명 일정 정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날은 동성애자였다가 또 다른 날은 이성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의지를 다졌기에, 그 정체성이 자신에게 있어 진실하고 더욱 강한 것이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정체성을 강요하거나 바꾸어줄 수는 없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인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과 이성인 사람에게 이끌릴 수 있는 확률을 동시에 타고난다고 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성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성만 좋아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자신이 동성에게 이끌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못해본 채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상담소의 한 활동가는 이를 두고 '동성애자는 정체화 하지만 이성애자는 사회화된다' 는 표현을 하기도 했답니다.

사회의 이성애주의와 동성애 혐오가 점차 사라져, 사람들이 단지 현재 사회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탐색해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Q : 자기가 레즈비언인 것은 정확히 어떻게 아나요?

A :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혹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파악하게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레즈비언 정체성을 부정하고 혼란스러워 하지요.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성애 중심적이어서, 동성을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 레즈비언인지 아닌지를 딱 판단을 해서 알려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신이 레즈비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줄 수도 없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서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이에요.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색해나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끌리고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성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좋은 책들을 찾아 읽고 동성애자 인권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구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주위에 동성애자 친구가 있다면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정보들은 도움을 받거나 참고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라고 의존하면 곤란해요.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감정과 고민들, 그리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진솔하게 답변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동성을 좋아해본 경험이나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동성에 정체성은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성장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겪은 많은 경험들과 나의 감정,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것들이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지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편하고 즐거운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유대감과 친밀감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떠한 방식의 삶을 계획하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02)718~3542

한국레즈비언상담소자료실

<http://lsangdam.org/bbs/zboard.php?id=rights>

Q : 사춘기 때 동성에게 우정 이상의 호감을 느끼곤 하는 것, 한 때 아닌가요?

A : 상담소를 방문하는 많은 십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동성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주위에선 '이성을 좋아해야 할 청소년들이 아직 어리고 철이 덜 들어서 동성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한 때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성을 만나게 되어있다면서, 십대들의 감정과 고민을 가볍게 무시해버리지요.

십대들 중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비정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여기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억지로라도 이 시기를 피하기 위해 혹은 빨리 지나치기 위해 애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십대 시기의 현상일 뿐일까요? 이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지속적이고, 동성에게 끌리는 감정은 일시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인들이 십대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이리쿵 저리쿵 쉽게 단정을 짓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지극히 성인 위주여서 십대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덜어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논골적으로 말하면, 많은 경우 성인들은 십대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기를 바라지요. 게다가 우리 사회가 워낙 동성애 자체를 금기시하고 왜곡된 것으로 취급하다 보니, 동성을 향한 십대들의 진지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십대 때는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십대 때는 정신적인 성숙과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체성 교육이 필요한 시기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민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학교에선 동성애를 죄악시하거나 일탈행위로 보며 금지하고자 하는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십대들이 자신의 동성에 정체성이냐 경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기란 무척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동성애든 이성애든 건강한 관계 맺기가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애만이 옳고 동성애를 그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채 이성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지요. 만일 정체성에 대해 편견 없는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었더라면, 사회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한 채 이성애자처럼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해보면, 침대 때 동성을 사랑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평생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레즈비언들이 침대 때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나, 동성이 아닌 이성과 연애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침대의 동성애가 “한 때”라는 말은 편견일 뿐, 근거가 없는 얘기지요.

Q : 친구들 간의 깊은 우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요?

A :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동료애'의 착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감정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주위에서 동성의 상대에게 끌리는 감정에 대해서만 유독 '우정'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 의식을 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사랑은 이성 간에만 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말이지요. 동성애에게 끌리는 감정은 우정일 뿐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지 못하면 내면으로 상처가 깊게 된답니다.

사실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특별한 이끌림을 느끼는 상대가 동성인 경우에는, 이성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답니다. 이래선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작동하게 되니까요.

'사랑은 이성 간에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강요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사랑은 아니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상한 병에 걸린 것처럼, 위험에 빠진 것처럼,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자책하기도 하고요.

성정체성을 탐색하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현실을 떠올려 본다면, 동성애에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착각'일 뿐이라거나 '왜곡된 감정'이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의 친구에게 사랑을 느낀다면,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어린 말들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내면을 열고 솔직하게 묻고 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느낀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Q : 커밍아웃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 커밍아웃은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영어로 'coming-out of the closet'이라고 하는 말의 줄인 표현이지요. 지금의 사회는 동성애자가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성애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성애중심적인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드러내는 행동을 커밍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분이려면, 벽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한 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정체성 드러내기를 벽장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에 빗대어 말한 이유가 와 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커밍아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혹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커밍아웃이 동성애자에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해주는 토대이기도 하면서, 동성애자 스스로 보다 통합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해요. 타인과 솔직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사회는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기엔 몹시 위협적인 현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커밍아웃이 생존의 권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커밍아웃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수월한 편일 수 있지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간관계나 주위의 사람들과 문화적 차이, 조건에 따라 많이 다르지요.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를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거나 변태나 정신질환자 등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곤 하지요. 그렇게 갑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던 벽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편견의 시선을 곳곳이 헤쳐나가겠다는 용기와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기도 해요.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낙인찍혀 있는 문화 속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은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할 사안이지요.

커밍아웃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경우,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가족들에게 알렸다가 쫓겨나지 않을까, 나

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요. 그만큼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요.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들의 선택이자 결정이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커밍아웃은 항상 권장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차별의 벽들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지요.

커밍아웃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나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튼튼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조금씩 생겨날수록, 동성애자의 권리가 신장될수록,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지요.

Q : 커밍아웃을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누구에게 먼저 하는 것이 나을까요?
커밍아웃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커밍아웃을 할 지 말 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할 지에 대해 정해진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동성애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나 인간관계가 다르니까요.

다만 몇 가지 커밍아웃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커밍아웃은 일정 정도 마음의 준비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충분한 고민과 준비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커밍아웃할 때 어떤 말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지, 커밍아웃 이후 상대방이 보일 반응은 무엇인지, 앞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물론 타인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 예측하기란 어렵지만, 어느 정도 머리 속으로 상황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커밍아웃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우선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할 테고요, 왜 이 사람에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커밍아웃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동성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유독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요.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는 대상은 같은 동성애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가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는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가슴에 압박감과 죄책감을 갖게 만들지요. 가족들 간에 사생활이나 비밀이 없어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들의 기대치도 높고, 가족에게 생계의 일정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쁘고 부정직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끈끈한 관계로 묶여있음으로 인해서, 생계를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커밍아웃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이 점을 꼼꼼히 생각

한 후에,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구성원 전부가 아닌 언니나 어머니, 동생 등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커밍아웃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우리 사회의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가 너무 강하다 보니, 상대방에게도 동성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올바른 정보가 필요하겠지요. 동성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나가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이 경우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해 주기 어렵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커밍아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거나, 때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차츰 자신을 알려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떠올려보세요. 커밍아웃도 자신과 타인과의 솔직한 관계맺기의 과정이고, 타인에게 동성애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마세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쌓이게 될 거예요.

또한 커밍아웃을 한 상대방에게 '나의 정체성에 대해 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동성애자가 받는 차별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의 성정체성을 동의없이 전할 때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혹은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아무런 대비도 없이 노골적인 차별과 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좋겠어요.

커밍아웃을 하는 일은 사람에 따라선 무척이나 힘겨운 일이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긍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에, 밀실 속에 숨어서 살 수만도 없는 일이지요. 실제로 커밍아웃 후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한답니다. 위험요소도 있지만, 그만큼 충분한 준비와

생각을 바탕으로 커밍아웃을 한다면, 후회하는 확률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커밍아웃을 지지해 줄 친구들을 만나고,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같은 정체성의 친구들이나 동성애자 인권을 존중하는 주변인들이 있다면, 위협에 처하거나 상심했을 때에도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자신만의 즐겁고 행복한 커밍아웃 이야기를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 레즈비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나요?

A : 레즈비언들이 겪는 어려움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고민하고, 삶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성장해나가기 어렵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성애만을 옳은 것이자,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채 자라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성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입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과서는 이성애가족 모델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이성에 눈 뜨는 시기"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거나, 문란하고 변태적 성행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십대들은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성정체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하기는커녕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지요. 일부 학교에선 레즈비언 학생들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리거나 머리길이를 규제하는 등 '이반검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십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지요.

이렇듯 사회적 편견이 만연한 까닭에 많은 레즈비언들이 스스로 레즈비언임을 깨닫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무척 험난한 과정을 거친답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도 이성애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성애자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가족형태도 남녀 간의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됐지요. 동성애자에겐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이 오랜 시간을 동거하며 가족처럼 살아왔다 해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지요.

최근 해외의 몇몇 나라에서는 동성간 결혼 혹은 파트너십이 인정되고 있고 입양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멀어 보이긴 해도 언젠가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법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을 이루고 살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동성애 인권운동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비단 법적으로 동성 커플이 인정받느냐 여부만 아니라, 실제로는 '비혼'으로 살아가는 많은 레즈비언들이 주위로부터 결혼 압력과 더불어 따가운 눈총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한국 사회는 특히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효'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레즈비언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는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점도 큰 고통이지요.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했는데 가족들로부터 정신이상으로 몰리거나 감금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절친한 친구 사이가 하루 아침에 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많은 불이익과 폭력,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우팅'(자신의 의도와는 반하여 타인에 의해 정체성이 폭로되는 것)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폭력, 폭행을 가하는 등 혐오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레즈비언이란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아우팅' 협박 및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범죄는 심각한 폭력과 차별행위로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지요. 이 점은 반드시 법적인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고, 동성애 인권운동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레즈비언들이 폭력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우팅' 위협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이나 법적 대응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게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경찰, 검찰, 판사 등이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혐오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주거나 신원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거나 공정한 수사,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다른 레즈비언 권리운동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 관련 범죄사건지원 여성연대'를 결성해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침해사례>를 발표하고 <형사절차 과정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경찰 및 국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바로 알기'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요. <http://www.support-u.org>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레즈비언들에겐 통합된 정체성을 지닌 채

온전히 존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이성애 중심적이기 때문에, 레즈비언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많은 레즈비언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며, 스스로 분열적인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듣고 있어야 하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일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척 힘들어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란 이유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무척 심각하고 심란하지요? 하지만 이런 모든 불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레즈비언들이 자신을 긍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지, 동성애 자체가 고통인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좋은 커플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레즈비언 커뮤니티 속에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자신의 인생을 찾아나간답니다. 레즈비언 인권운동도 이 척박한 토양에서 10년 넘게 꾀꾀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레즈비언들 개개인 모두 격려를 받아야 할 일이지요.

Q :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A : 세계적으로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를 둔 곳들도 많았습니다. 독일 나치 시절에는 동성애자를 수용소에 가두기도 했고, 영국이나 미국의 몇몇 주에서 동성애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동성

애자임이 드러나면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던 무서운 시절이 있었지요.

동성애자를 핍박하던 오랜 역사를 지나, 현재에는 각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나 제도를 상당 부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은 성별, 종교, 인종, 성적체성, 장애 등을 떠나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국가 혹은 지역에서는, 성문법과 관습법 등을 통해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정책이나 법률상에서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동성애금지법'이라고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가족구성권이나 혼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죠. 몇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포함시켰고, 심지어 군법에선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존하고 있답니다.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사회에선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밝혔을 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가족들의 손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내지고, 강제로 연인과 이별하게 되고,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의 범주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포함시켰습니다. 형법은 아니지만, 우리 법에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사회가 변화하려면 법과 제도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서 봤을 땐,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쉽없이, 꾸준히 말입니다. 법과 제도도 사

람들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법적, 제도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Q :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partnership)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국가는 어디 어디인가요?

A :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동성 커플의 파트너십(법적 관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와 지역들이 법적으로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크게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형태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2) 결혼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간의 결합을 법의 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국가들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1)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2006년 현재)

▶ 네덜란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한 것에 이어, 2000년 1월 1일부터 자녀 입양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 "부부"는 법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누구든지 자녀(네덜란드 아동으로만 제한)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벨기에

2003년 2월 13일에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 통치 시절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최고 7년 형까지 선고하고 발가벗긴 채 전기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정권 수립 2년 후인 1996년에는, 헌법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사문화되어 있었는데, 2003년에 동성애 관계를 금지한 모든 법률을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결혼과 입양 등 동성 부부를 위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캐나다

2003년, 온타리오 주, 오타와 주, 퀘벡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노바스코샤 주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연방정부도 동성결혼 합법화에 동의한 상태이고, 특히 오타와 주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동성 커플도 온타리오 주에서 결혼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미국

1996년 하와이 주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2004년 5월부터 동성 부부들에 대한 혼인신고 접수와 결혼증명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엄청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죠.

▶ 스페인

2005년 7월 동성결혼법이 제정되어 동성 부부들은 상속권과 연금수급권, 자녀입양권 등 이성 부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2) 동성애자 커플의 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2006년 현재)

동성애자의 커플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평생 동반자법', 사회연대협약(PACS), 시민결합(Civil Union) 등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독일, 핀란드, 뉴질

랜드, 미국의 버몬트 주와 코네티컷 주, 그리고 영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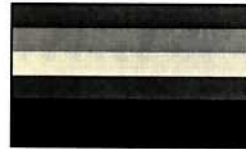
이들 국가에서는 동성 간 결합과 동거로 이루어지는 사실혼에 대해 세금, 연금, 가족수당, 병원 면회권, 상속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법적인 (이성애자) 부부와 동등하게 줍니다. 다만 입양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Q :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표시 같은 게 있나요?

A :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6색 무지개 깃발이 있고요,

그 외에도 분홍색 역삼각형, 검정색 역삼각형, 람다(lambda:λ) 표시, 라브리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6색 무지개 깃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출처 www.lambda.org)



6색 무지개 깃발(rainbow flag)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78년 길버트 베이커(Gilbert Baker)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게이-레즈비언 자긍심 행진(San Francisco Gay and Lesbian Pride Parade)에서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깃발을 제작할 필요를 느껴 만들었다고 해요. 베이커는 미국의 히피 운동과 흑인민권 운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처음에는 8색으로 깃발을 디자인 했다고 하는

데, 일곱 빛깔 레인보우에 핑크색을 더한 것이었죠.

베이커와 30명이 넘는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바느질하고 꿰매어서 만든 8색 무지개 깃발은 1978년 자긍심 행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이 깃발에는 분홍,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남색, 보라 이렇게 여덟 가지 색이 포함돼 있었고 각각 색슈얼리티, 삶, 치유, 태양, 자연, 예술, 조화, 그리고 영혼을 상징했지요. 그런데 베이커가 1979년의 퍼레이드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깃발 상회(San Francisco Flag Co.)에 대량 생산을 의뢰하면서, 분홍색이 빠지게 되었어요. 당시에 그 분홍색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색상이었다고 하네요.

그 해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커밍아웃한 시의원이었다던 하비 밀크(Harvey Milk)가 저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979년 동성애자 퍼레이드 위원회는 동성애자들의 세력을 보여주기 위해 베이커의 깃발을 사용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퍼레이드 때 길 양쪽 편으로 세 가지 색으로 나누어 달기 위해 비슷한 톤이 중복되는 남색을 제외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6색 무지개 깃발은 바로 이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1994년 뉴욕에서 치러진 스톤월 항쟁 25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는 폭 30피트에 길이가 1마일이나 되는 무지개 깃발이 행진 내내 1만 여명의 자원활동가에 의해 운반되었다고 하네요.

6색 무지개는 깃발로만 쓰이지 않고 다양한 팬시상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일부 동성애자들은 자동차 범퍼나 트렁크 뚜껑 한 쪽 귀퉁이에 이 깃발을 스티커로 만들어 부착하고 다니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선 집집마다, 또는 상점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6색 무지개 표시를 해두기도 한다고 해요.

한국 동성애자들도 6색 무지개를 우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하는 각 단체들, 그리고 대학의 동성애자 모임 등은

퍼레이드를 할 때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6색 무지개 이미지를 가지고 제작한 열쇠고리, 뱃지, 핸드폰 고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 물품들을 내놓고 있지요. 각 단체가 주관하는 여러 행사들에 참여하시면 아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6색 무지개 소품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분홍색 역삼각형에 대해 알아보까요? 분홍색

역삼각형(pink inverted triangle)은 나치의 홀로코스트(대량학살)와 관련이 있어요. 나치라고 하면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떠올리기는 쉬워도 동성애자 탄압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핍박당했어요.

1937년과 1938년에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동성애자의 수만 해도 2만5천명에 육박했고, 1942년에는 히틀러가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사형까지 높일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동성의 상대에 대한 감정을 품거나 환상을 가진 것으로만 추정되어도 바로 붙잡혀 갔다고 하니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만하지요.

동성애자들은 더욱 과중한 노역에 시달렸을 뿐만이 아니라, 간수나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수감자는 녹색 역삼각형, 정치범은 빨간색 역삼각형, 유대인은 두 개의 노란색 역삼각형을 겹쳐 만든 다윗의 별 모양,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분홍색 역삼각형으로 저마다 다른 표식을 달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인 수감자는 노란색 역삼각형과 분홍색 역삼각형이 겹쳐있는 표식을 달고 있었는데, 이들이 수용소 안의 거의 최하위 계급이나 마찬가지로었다고 해요.

동성애자들을 탄압한 근거가 되었던 것은 당시 독일법의 175조가 담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한참 더 남아 있어, 유대인 생존자들이 강제수용소로부터 풀려나오고 나서도 동성애자 수감자들은 그 조항이 폐기된 1969년까지 24년여 간을 더 수감돼 있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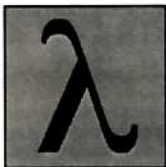
이후 1970년대부터 이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됩니다. 동성애자 억압의 상징이었던 이 표식을 동성애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차별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제 분홍색 역삼각형은 동성애자 자긍심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정색 역삼각형에 대해 알아보게요. 사실 분홍색

역삼각형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달았던 표식이었습니다. 레즈비언들은 175조의 적용을 받아 수용소에 수감되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성들은 “반사회적 행위” 라는 명목으로 체포되고 수감됐습니다.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성매매 여성들이 나치가 그리는 이상적인 여성상(요리, 청소, 양육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들렸습니다. 이 여성들이 달았던 것이 바로 검정색 역삼각형이지요.

이 표식은 현재 레즈비언의 자긍심과 여성들 간의 자매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억압의 상징으로 쓰였던 분홍색 역삼각형이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상징으로 쓰이는 것과 비슷한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제 람다(lambda)를 보겠습니다. 이 표시는 그리스어

알파벳 중 ‘람다’라는 글자의 소문자 표기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1970년대 초반부터 레즈비언 운동과 게이 운동을 나타내는 표시로 쓰였다고 해요.

이 알파벳 자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설은 없지만, ‘해방’을 나타낸다는 설, ‘동성애자 운동의 힘’을 나타낸다는 설, ‘편견과 무지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대한 앞의 빛’을 나타낸다는 설 등이 있어요.

1974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국제 동성애자 인권의회에서는 이 람다 표시를 공식적으로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국제적 표시로서 인정했다고 해요. 멋진 글자죠?



이제, 라브리스(Labrys) 상징을 살펴볼게요. 라브리스는 양

날 도끼를 말해요. 그림을 보면 여느 도끼와 달리 양쪽으로 날이 나있죠? 이걸 8천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이할 만한 건, 경작용 도구이자 무기인 이 양날 도끼가 여성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여전사들이나, 모계 사회였던 미노안 사회의 여성들이 이 라브리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라브리스가 여성의 힘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라브리스가 여성의 대표적 상징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은 1970년대라고 하는데요. 많은 레즈비언과 여성주의자들이 라브리스를 여성의 상징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이르기까지 라브리스는 각종 팬시 용품이나 여러 가지 행사의 로고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여성 표시를 두 개 겹쳐서 '레즈비언'이나 '자매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지요.

위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했습니다.

- 최 안드레아, 「터부에서 상식으로의 전환」, 아미, 1997.
- GLBT Community Service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서비스 (www.lambda.org/symbols.htm)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끼리끼리 상담 사례집」, 2004.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사전 (ksrc.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Q : 여성주의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지지한다면서요?

A : 여성주의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차별하고 위계를 형성하는 제도적, 문화적, 역사적인 것들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해서 지지하지요.

특히 여성주의는 이성애주의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동성애자의 권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성애주의가 동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밀함과 유대 관계를 배제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분리를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성애주의는 여성과 남성이 맺는 관계 속에서 성 역할을 확연히 구분 짓고,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성애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가족제도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종속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성 간 사랑의 방식이나 결혼의 방식,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의,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할의 차이와 위계 등을 생각해보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성애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지요.

이성애주의의 폐해는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 침해 면에서도 심각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에게도 억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여성이면서 동성애자인 레즈비언들의 경우는 이중의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관점으로나 동성애자 권리를 위해서나 이성애주의에 저항을 해야 할 이유는 분명해지죠.

Q : 저는 인권이란 말이 어렵고, 운동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동성애자를 위한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싶네요. 평범한 사람도 단체의 활동가가 될 수 있나요?

A : 물론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인권운동을 할 수 있어요. 부담하다고 느끼는 것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부터 활동의 시작이죠. 인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렵거나, 지금까지 활동해본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해 온 수많은 레즈비언들의 삶이 조금 덜 답답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레즈비언들이 숨 죽이고 살면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마음 말이죠. 그 과정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해요.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는데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참여하기 시작하면 배움은 저절로 뒤따라 온답니다. 혼자 생각할 때 보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떠오르고, 함께 활동하며 매순간 배우게 되지요. 상담의 경우도 약 1년간 공부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레즈비언 상담가로 태어나게 되고요. 오래 활동해 온 활동가들이라 해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 동성애자 인권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소에 문의해 주세요. 활동하고 싶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활동가들은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새로운 활동가를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활동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02)703-3542

FAQ

III. 레즈비언의 건강한 성

Q : 레즈비언 섹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해요.

A : 네, 레즈비언 섹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섹스의 이미지는 여성과 남성간의 성관계 모델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여성들 간에 과연 어떻게 섹스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많이들 잘 모르곤 합니다. 레즈비언 당사자조차도 말이지요. 이는 이성간의 성관계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뿌리깊은 동성애 혐오와 남성의 성기가 느끼는 쾌감 중심으로만 굳어져 온 남성 위주의 성관계 모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관계란, 이성간에만 성립 가능

한 것도 결코 아니거니와 신체의 성기 부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 역시도 아니니까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섹스란 파트너와 내가 성적인 쾌감을 나누는 정신적, 육체적 행위입니다. 이 때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작동해요. 물론 이 말은, 몸이 느끼는 것과 정서적인 반응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긴밀하다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차원에서 긴밀하다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것과 정서적으로 충족해지는 것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일인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극에 의한 몸 그 자체의 반응은 지극히 물리적인 차원의 반응에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애인과의 섹스이건 단순히 섹스 파트너와의 섹스이건 섹스라는 행위에는 감정과 몸의 반응이 함께 개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레즈비언 섹스의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로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다' 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감대를 탐색해 나가고 상대방의 성감대를 탐색해 나가면서 또 어떻게 서로의 성감대를 자극하면 좋은 느낌이 더 커지는지를 함께 연구하다보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방식의 터치와 자세들을 터득할 수 있을 터이니까요. 일단 입술, 혀, 손가락, 등의 신체나 섹스 보조 도구 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법부터가 다양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자세로 성관계를 갖느냐, 역시도 정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기는 '온 몸이 성감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사람의 성감대는 신체의 여러 곳에 퍼져 있습니다. 성감대 중에는 여간해서는 눈치 채지 못하게 숨어있는 곳도 있고 자기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을 만큼 자극에 민감한 곳도 있어요. 각각의 성감대에 전해져오는 느낌은 물론 저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간의 클리토리스 접촉 역시 가능합니다.

가벼운 포옹과 짧고 강렬한 입맞춤, 열렬한 애무, 사실 이 모든 게 섹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과연 섹스냐, 할 때 성기에 대한 터치나 성기간의 접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적 쾌감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인데다가 그러한 성적 쾌감을 주로 느끼는 성감대라는 곳도 성기 이외의 여러 신체 부위에 널리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보다 만족스런 섹스를 위해서는, 자위 등의 방식으로 성감대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성감을 개발하고 파트너와 서로간의 성감대며 좋아하는 섹스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섹스 시에 자기 몸의 느낌에 솔직해지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스로가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섹스 자체가 기꺼이 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키지 않는지, 내키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좋다면 어디서 좋은 것 같은지, 등에 대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았다 하더라도 관계 중에 무슨 이유에서든 문득 불쾌해져서 섹스를 중단하고 싶다면 그 느낌에 솔직한 반응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인에게 좋습니다. 그런 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먼저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에 억지로 계속할 필요가 절대로 없답니다. 그런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하세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본인의 느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해 두는 것도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섹스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지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티지넷(www.tgnet.co.kr)의 라이프 코너에 있는 마법의 성이나 미유넷(www.miunet.co.kr)의 s 다이어리라는 코너에 접속해 보세요. 참고가 될만한 유용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경험과 고민을 나누면서 즐거운 섹스를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Q: 레즈비언들이 잘 걸리는 성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병은 어떻게 예방하죠?

A: 레즈비언이라고 해서 특별히 잘 걸리는 성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걸릴 수 있는 성병은 레즈비언도 걸릴 수 있다고 봐야겠지요.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부인과 질병으로는 '질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겪는다고 하지요. 성관계와 관계없이 질 내 정상적인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염으로는 세균성 질염, 곰팡이성 질염이 있고, 성관계를 통해 전염될 수 있는 질염으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습니다. 질 입구에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림의 증상이 있거나 질 분비물의 색깔이 진하고 분비물에서 악취가 난다면 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염은 방치하면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염은 비교적 쉽게 치료됩니다.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기 차 있거나 꽉 끼는 속옷을 입지 않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나 윤활유는 질 내 좋은 세균까지 죽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질 주위를 자주 씻되, 자극이 강한 비누나 질 세정액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질 안까지 씻지는 않아야 합니다. 섹스를 자주 하면 질의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 몸도 성관계도 쉬면서 몸의 면역을 높이고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만약 파트너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감염되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요.

질염에는 마늘, 도라지, 우엉,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감귤류, 토마토, 김

치, 그리고 된장 등이 좋다고 하네요. 빵, 맥주, 치즈, 설탕, 밀가루 음식, 고기, 유제품, 그리고 특히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은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줄여야 합니다. 질염을 발견하고 제때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 분비물 양이 갑자기 늘거나 색깔이 진해지고 악취가 나지 않는지 평소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성병으로는 '클라미디아'가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는 보통 질이나 항문성교를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는 분비물이 교환되지 않더라도 전염될 수 있고 분비물이 눈에 닿을 경우 눈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클라미디아에 걸릴 경우 증상이 거의 없으며, 있는 경우에도 질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아주 경미합니다. 클라미디아는 골반염, 방광염, 화농성 자궁경부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음부포진)'의 경우 성기의 접촉이나 마찰만으로도 전염이 가능합니다. 피부의 상처를 통해서도 전염되고 손을 통해 눈이나 입으로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4~7일의 잠복 기간을 거친 후, 감염된 피부와 점막에 수포들이 생기며 빠르게 번지면서 따갑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후 수포가 터져 껍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세균에 감염되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완치되기가 쉽지 않으며 스트레스, 과로, 과음 등으로 인해 쉽게 재발됩니다.

17세에서 23세 여성들은 '임질'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오랄섹스, 항문섹스나 성기접촉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임질에 감염될 경우 대개 증상이 없으나, 질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성교시 질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따가운 것도 임질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매독'은 임질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오랄섹스, 항문섹스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독에 걸리면 성기 주변에 딱딱하고 통증이 없는 종기가 생깁니다. 매독은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려운 편으로 이후 재발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 주변을 물로 자주 씻어주고 속옷을 면소재의 헐렁한 것으로 자주 갈아입는 등 성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과 감염된 사람과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파트너가 성병이 감염되었다면 자신도 함께 치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콘돔을 사용하고 구강성교 시에는 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행위가 끝난 후에는 성기 주변을 물로 씻고 잠이 드는 것도 좋습니다.

레즈비언들 중에는 여성 간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에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에이즈가 마치 동성애자만의 성병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이즈는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콘돔사용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레즈비언의 경우 오히려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바 있고요.

Q: 성관계 도중 질에서 피가 났어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피가 났어요. 왜 그런 거죠?

A: 성교 후 출혈이 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질주름(소위 말하는 처녀막)'이 파열되어서 그런 걸 수 있지요. 레즈비언 성교로도 질주름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질주름의 위치나 생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계기로 파열되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몸이 이상이 생겼다고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궁에 혹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자궁벽이 굽힌 걸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교 중, 질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혈이 계속 되는 등 질병이 있는 것 같다면 두려워말고 산부인과에 꼭 다녀오세요. 질 내부에는 신경이 없어서 상처가 생긴다 해도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염 등 질병이 있는 것이라면 파트너도 함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관계를 하면 처녀막이 터질까봐 무서워요.

A: '막' 이라고 하면 마치 램처럼 막혀있어서 건드리면 북- 하고 찢어질 것만 같죠? 하지만 질 입구가 정말 막 같은 것으로 막혀 있다면 월경이나 질 분비물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겠어요^^ 처녀막은 사실 뽕뽕히 퍼져 있는 창호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탄력성이 있는 부드러운 점막의 주름으로서 가운데가 찢려 있는 근육 조직입니다. 질의 입구 언저리에 필립컬릭 불거져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학계에서도 '처녀막'이 아니라 '질주름'으로 용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지요?

이 질주름은 생긴 모양도 여러 가지라 조그마한 구멍이 몇 개나 나 있는 것이나 구멍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 약간 두터운 것이나 얇은 것, 또는